民官공동 제3섹터 미래경제 주도

—제3섹터가 무엇인가.

△경제학을 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흔히 경제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는 이분법에 젖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라고도 민간이라고도 잘라 말할 수 없는 부문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프랑스나 독일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돈을 대고 민간이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현재 독일은 연방정부가 경제에 직접 간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지방정부가 나서서 민간을 조직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나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민관 합동부문이 많이 있다.

포디즘의 대안

—제3섹터가 최근 들어 자주 거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70년대에 구조적인 위기에 처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제3섹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포디즘의 위기」라고 진단했던 내용일텐데 간략히 소개하면.

△3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거치고 2차대전 후 형성된 서구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노동과정을 보면 테일러주의 등에 의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사람과 생산을 조직하는 사람 사이에 기능적인 분화가 철저히 이루어졌다. 생산을 조직하는 사람만이 「머리」를 사용하고 생산라인에 있는 사람은 주어지는 일만 했던 것이다. 이런 기능분화는 분업을 심화시켜 대량생산을 해내기 위한 체제였다.

이러한 대량생산체제가 유지되려면 수요부문에서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소비측면에서는 케인스적인 수요관리정책이 시행되고(특히 선진국가의 경우) 노사간에 임금협약이 이루어져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유효수요가 유지됐다. 투자측면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계속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면서 수요를 떠받쳤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강력한 헤게모니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한편 이런 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은 중앙정부가 개입, 실업자를 구제하고 노약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에 의해 완화시킬 수 있었다.

부아예, 아글리에타, 페티 등 프랑스 조절학파 동료들은 이러한 축적체제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형태를 「포디즘」이라고 이름붙였다.

—그러면 포스트포디즘은 무엇인가.

△포디즘이후의 경제운용형태이다. 포스트포디즘이 논의된 것은 포디즘이 70년대 들어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경직적인」 노사관계를 수용하기 어려워졌다. 미국도 헤게모니가 약해지면서 과거처럼 세계수요를 마냥 지탱해 나갈 수 없게 됐다. 복지국가도 노년층 등 사회복지수혜자들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용을 부담할 계층은 감소하는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워졌다.

—포스트포디즘은 위기에 처한 포디즘의 대안이라 할 수 있을텐데 현재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크게 두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는 英美지역에서 채택한 것으로 유연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체제가 있다. 노사관계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직성을 해소시켜 시장에 유연성을 가져오고 이에따라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켜 축적을 계속해나간다는 방향이다.

복지국가 경직성

둘째는 80년대에 일본이나 독일 등이 채택한 합의에 의한 조정이라는 노선이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거나 사회보장이 축소되지 않았다. 독일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은 기업차원에서 경제적 위기에 대한 공동체적 힘을 이끌어냈다.

—90년대에 들어서 자유주의적인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떤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자유주의가 단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세계를 압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어느 정부건 임금을 깎고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큰정부라는 역설

합의에 의한 조정이라는 길을 택하려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정책입안자 사이에 장기적으로 열매가 맺인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전통이 서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택하기 어려운 경로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3섹터의 중요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적 방식에는 「경쟁」만이 있을 뿐 사랑이 없다. 「왜 유연성이 필요하냐」고 질문하면 「국제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답이다. 자유주의적 방식에서는 모든 조정이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는 조각조각 찢겨진다.

또 임금이 제대로 상승되지 않고 국제간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대되는 생산력을 받아들일 유효수요가 부족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순조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적인 행동양식이 「큰 정부」와 공존해야 하는 역설적 현상이다.

제3섹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제3섹터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회가 유지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연대감이 있어야 한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유주의적인 방식은 연대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연대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복지국가는 이미 커다란 한계를 드러냈다. 관료화된 복지국가체제에서는 창의적인 개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지방의 소규모단위에서 민관이 함께 구성하는 제3섹터는 연대감과 함께 개인들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주도권 회복

—중앙정부는 그러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남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제3섹터에 의해 사회적 연대감이 유지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그 고유한 권한과 능력으로 생산적인 민간집단과 제3섹터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재정적 연결고리 역할을 못하는 南美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제3섹터가 非정부조직(NGO)이나 해외자금 등에 재정적으로 의존한다. 특히 알제리아 이집트 등에서는 제3섹터가 이슬람주의적 종교집단에 자금줄을 의존하는데 위험성이 많은 방식이다.

—한국이나 중국 등 동양사회에서는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 등이 연대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복지국가라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복지제도가 있어야만 사회가 바람직하게 유지된다. 유럽에서는 가족이 포디즘사회 이전에 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했다. 지금은 핵가족화되어 이런 복지기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최근 연금수혜자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제3섹터와 함께 환경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달라.

△현대의 환경문제는 18, 19세기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에 비해 한가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당시만 해도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였다. 물론 각 지역내에서 환경을 지키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지속시키고 연대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문제는 세계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실효과와 같은 현상은 다음세대에 가서는 지구의 모든 인류가 당면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내 경험상으로 보면 자유주의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가 환경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합의에 의한 조정을 강조하는 나라가 환경문제에 더 적극적이다. 그 사회내에 깔려있는 연대감이 환경문제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다.

약 력

—파리대학 경제학박사
—프랑스 조절학파의 일원
—국가과학연구소(CNRS) 소장
—현 세프레마센터 교수

◇주요 저서
—허상같은 세계: 인플레, 금융과 세계적 위기 (82)
—신기루와 기적: 세계포디즘의 위기(88)
—신국제경제질서(89)
—승리하는 지역(92)

미래사회와 포스트포디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세방화」라는 조어가 한참 유행했다. 세계화가 지방화와 불가분하게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더욱 국제화되고 있고 지난해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한후 지방시대도 활짝 열리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최근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제3섹터」라고 하는 부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제1섹터도 아니고 민간만이 활동하는 제2섹터도 아닌 민관공동부문이 특히 지방에서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프랑스 조절학파의 기수인 알란 리피에츠 파리대학 세프레마센터 교수는 일찍이 80년대초부터 「포스트포디즘」 논쟁을 주도하며 제3섹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을 통해 리피에츠교수를 만나 그가 그리는 미래의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註>

△조절학파 경제학의 거두 알란 리피에츠 프랑스 세프레마센터교수(사진 왼쪽)가 本社 창간 30주년을 맞아 申瑋燮기자와 인터넷으로 對談하고 있다.

지나친 경쟁추구 모래알사회 불러
정부역할은 재정적 지원에 그쳐야

환경문제 이제는 세계차원서 접근
미국 더이상 수요창출 중심축못돼
복지국가 소득재분배도 한계 노출